

잠녀·문화 세계화 작업 산으로 갈라

충분한 공론화 없이 성과 만들기만 급급해
전담 인력 1명·워킹그룹 개점휴업 등 지적

등록 : 2012년 02월 19일 (일) 17:22:31
최종수정 : 2012년 02월 19일 (일) 17:22:31

고 미 기자 ✉ popmee@hanmail.net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잠녀·문화 세계화'작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잠녀 문화의 정체성 확립 등 핵심 내용에 대한 접근은 뒷전으로 미뤄둔 채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에 급급하면서 추진 의지에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도는 지난해 제주잠녀·문화 세계화 5개년(2011~2015)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상실 위기에 놓인 제주잠녀·잠녀문화를 보존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했다.

당초 잠녀·잠녀문화의 정체성 확립과 잠녀 내부의 공감대 형성 등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작업을 착실히 진행하겠다는 계획은 그러나 '해녀축제' 규모화 등 외형적 성장에 휘둘리며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일련의 과정을 국가 차원의 진행 속도에 앞질러 진행하면서 성과에 급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 도는 '제주잠녀·문화'가 국가 비지정 문화재 목록에 포함됐다고 언급했지만 아직까지 '국가 비지정 문화재 목록'자체가 정부 고시가 되지 않은 상태다. 도의 설부른 행보에 관련 기관인 문화재청이 오히려 당혹해 하는가 하면 해녀문화전승보전위원회 내부에서도 소통 부재에 대한 불만이 제기됐다.

지난해 말 공개된 해녀문화센터 건립 계획 역시 '잠녀 문화'보존·전승을 목적으로 내걸기는 했지만 한수풀해녀학교라는 이름으로 기문영종인 잠녀양성과정을 제외하고는 '해녀 공연 삼설화'와 어촌 체험이 내용의 전부다.

올 초 진행된 제주해녀축제조직위 회의에서도 내용 없는 축제에 대한 반성과 전면적인 수정 요구가 제기되는 등 도의 조급함에 경종을 울렸다.

사실상 관련 업무를 단 1명이 전담하고 있는데다 잠녀와 관련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할 목적으로 구성된 제주해녀문화 세계화 워킹그룹은 지난해 8월 첫 회의를 마지막으로 개점휴업한 상태다.

결국 내실 있는 추진과 달리 성과를 내놓는데 주력하다보니 손발이 맞지 않는가 하면 추진방향까지 잃는 오류를 범하고 지적이 비등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 관계자는 "지난해 중국의 아리랑 문화유산 등록 파문 이후 신청한 사안 대부분이 국가 목록에 포함될 분위기여서 충분한 설득논리로 가능한 선순위를 차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반공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건물만 짓겠다고 덤비는 꼴"이라고 꼬집었다.